



기억 속 내음을 표현한 치렛거리

이예주

차례

1. 들어가는 말

2. 작품의 배경

2.1 일상 속 기억 되는 내음

2.2 기억 속 내음을 표현하는 재료_ 수지점토

2.3 참고작가

2.3.1 참고작가_ 안나 하고피안 Ana Hagopian

2.3.2 참고작가_ 비키 메이슨 Vicki Mason

2.3.3 참고작가_ 헬레나 레 흐티 넨 Helena Lehtinen

3. 작품의 전개와 표현 방법

3.1 작품의 전개방법

3.2 기억 속 내음에 대한 표현방법

3.2.1 기억 속 내음에 대한 시각적 느낌 표현

3.2.2 기억 속 내음을 떠올렸을 때의 감정 표현

4. 연구작품

4.1 연구작품 1_ 내 파란색 흉통

4.2.1 연구작품 2_ 1994년, 병원에서 1

4.2.2 연구작품 3_ 1994년, 병원에서2

5. 나가는 말

도움 글 목록

1. 들어가는 말

인간은 자신이 경험했던 다양한 일들을 기억한다. 기억은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것이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각을 통해, 경험되어지게 된다. 이러한 기억들은 의식하지 않으면 금방 잊혀지거나 상황에 따라 주관적 관점으로 변해 기억 되어지게 된다. 또 기억하는 그 순간의 감각과 감정이 함께 떠오르기도 하며 실제 존재하는 시각적 이미지와는 다른 자신만의 감각을 통해 느끼게 된 새로운 주관적인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된다. 본 연구의 기본이 되는 내음에 대한 기억을 통해 과거에 느꼈던 강렬했던 내음과 그 내음으로 인해 느낀 감정으로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저장되어있는 기억들을 형상화 해서 치레거리로 표현해 보고자 한다.

2. 작품의 배경

2.1 일상 속 기억 되는 내음

일상 속에서 기억하고 싶은, 혹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내음들이 있다. 일반적으로 꼭 기억하고 싶지 않더라도 경험에 의해 자연적으로 내음을 기억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특별한 경험으로 인해 그 내음을 특별하게 기억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내음에 대한 기억들도 개인의 주관적 의미로 인식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지나 칠 수 있는 내음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커다란 의미를 지니게 되는 내음이 되기도 한다.

나에게 내음은 아주 중요한 요소중 하나이다. 남들과 다르게 후각이 예민한 편이라 후각에 의해 지각되어지는 모든 내음에 반응을 하는 편이며, 좋은 추억이 있는 특정한 공간이나 장소를 떠오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장소에서 났던 내음이 같이 생각이 나는 편이다. 그래서 안좋았던 기억이나 생각하기 싫은 것들이 머리속에서 떠오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좋아하는 내음을 찾게되고, 그 내음을 맡아 머리속을 환기시켜준다. 나에게 내음이란 나만의 시간(추억) 기억법이며, 나 자신을 나쁜 기억으로부터 달아날 수 있게 해주는 안식처인 것이다.

내가 언제부터 후각에 의해 지각되어지는 내음에 반응을 하게 되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정확히 기억이 나는 내음의 기억은 4살때 엄마 등에 업혀 호흡기를 끼고 겨우 숨을 쉬며 잠들었을 때의 병원 내음이다. 나는 선천성 천식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5살 때까지 천식으로 인해 밤에는 응급실에 가지 않으면 호흡곤란으로 인해 잠을 자지 못했다. 그래서 내 기억속 유년기는 병원에서 보낸 기억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병원이 싫었고, 병원 냄새가 싫었다. 아마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음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던 것 같다. 조금만 자극적인 내음을 맡게되면 내 몸은 바로 내음에 반응을 보여 호흡곤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다행이 5살 이후로 천식증상이 호전 되었고, 꾸준한 치료를 받아 지금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해졌다. 이제 더이상 자극적인 내음으로 인해 내몸은 호흡곤란이 일으키지 않는다. 하지만 그 때의 기억으로 나는 여전히 후각을 통해 자각되어지는 내음에는 예민하다.

그래서 나만의 기억법이자 안식처인 내음을 간직하고싶다는 생각이 들게되었고 나만의 기억법을 형상화 해서 나만의 조형언어로 작업을 풀어나가고자 했다.

2.2 기억 속 향을 표현하는 재료_수지점토

사람들마다 조형미를 느끼는 부분은 제각기 다 다를것이다. 나는 하나의 유닛들이 반복되어 군집을 이루고 그 군집들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형태에 조형미를 느낀다. 선과 선, 얇은 유닛들이 겹겹이 쌓여 그 자체의 새로운 질감을 만들어내고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 새로운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나의 기억을 간직하고 형상화 하고싶은 나만의 조형적 언어이며 표현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재료에 대해 고민을 하다가 수지점토를 선택하게 되었다.

점토는 어렸을 적부터 가장 쉽게 접하게되는 재료 중 하나이며 무언가를 만들때 다양한 표현이 가능한 재료이기도하다. 특히 수지 점토는 원하는 형태를 만들고 난 후에 공기중에 건조를 시키고 나면 수지화되어 하나의 플라스틱이 되기 때문에 다른 점토들 보다 후처리 시간이 단축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색상 표

현도 제한이 없고, 무게 또한 일반 점토들 보다 가볍기 때문에 치레거리를 만들기에 좋은 재료라고 생각되어진다.

수지점토는 하얗고 매끈한 질감을 가진 점토, 부드러운 종이의 질감을 가진 점토 두가지가 있으며 건조 후 반투명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건조시간은 12시간 정도 걸리며 건조 후에는 구부림, 충격에 강해지게 된다. 어느정도 내수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완벽한 내수성을 원할 경우, 코팅처리로 마감을 해주는 것이 형태 유지와 내수성을 높여주는데 도움이 된다.

2.3 참고작가

2.3.1 참고작가_ 안나 하고피안 Ana Hagopi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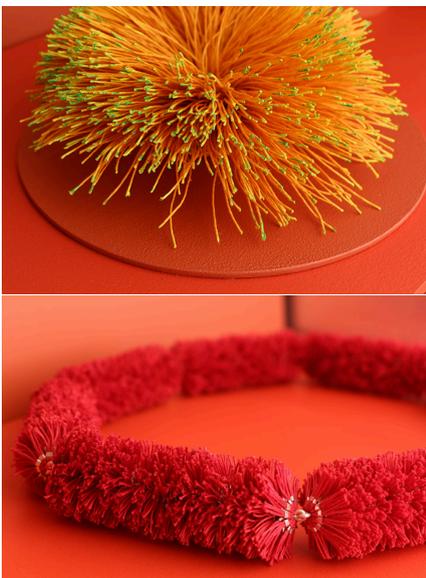
[그림 1] 안나 하고피안 Ana Hagopian, <Tulip>



[그림 2] 안나 하고피안 Ana Hagopian, <Pluma>

안나 하고피안 Ana Hagopian 은 종이를 가지고 볼륨과 모양을 만들며 무한한 색상과 질감을 표현하는 스페인 치레거리 작가이다. 그녀는 종이와 천 펠트 등을 이용해 하나의 작은 단위를 만들고 그 작은 단위들을 다시 조합하여 유기적인 형태를 만들어 낸다.

2.3.2 참고작가_ 비키 메이슨 Vicki Mason



[그림 3] 비키 메이슨 Vicki Mason, 〈Bursts of spiky flowers〉

[그림 4] 비키 메이슨 Vicki Mason, 〈Whorl brooches from The Entangled Garden〉

[그림 5] 비키 메이슨 Vicki Mason, 〈Whorl brooches from The Entangled Garden〉

비키 메이슨 Vicki Mason 은 호주에 서식하는 식물, 외래 식물등의 형태를 이용해 작업을 하는 호주 치레거리 작가이다. 그녀는 유연한 PVC시트에 인쇄를 하거나 바느질, 염색기법을 사용하여 원하는 색상과 작은 단위의 형태를 만들고, 그 작은 단위의 형태들을 다시 조합하여 식물에서 영감받은 느낌을 표현한다.

2.3.3 참고작가_ 헬레나 레 흐티 넨 Helena Lehtinen



[그림 6] 헬레나 레 흐티 넨 Helena Lehtinen, 〈Garden〉, 2011

[그림 7] 헬레나 레 흐티 넨 Helena Lehtinen, 〈Untitled〉, 2016

[그림 8] 헬레나 레 흐티 넨 Helena Lehtinen, 〈Garden〉, 2011

헬레나 레 흐티 넨 Helena Lehtinen은 작은 일상의 물건에서 영감을 얻어 나무, 금속 및 재활용 자재로 작업을 하는 핀란드 치레거리 작가이다. 그녀는 여러 재료들을 혼합하여 작업을 하는데 각 재료들이 풍겨내는 느낌들을 잘 살려서 깔끔하게 구상을 한다. 선의 느낌, 차분한 색상, 거기에 작은 유리구슬들을 이용해 군집을 이루고있는 형태를 이용해 그녀가 생각하는 일상을 표현한다.

3. 작품의 전개와 표현 방법

3.1 작품의 전개방법

지금까지 내 삶을 살아오면서 머리속에 기억된 수많은 내음들 중에 그 당시의 감정과 상황이 뚜렷하게 기억이 남은 기억속 내음들을 선정하여 작업을 진행하게되었다. 먼저 기억속 그 당시의 내음에 대한 나의 생각과 감정 들을 글로 정리를 하고, 그 당시 느꼈던 감정들을 표현 할 수 있는 단어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단어들을 통해 내가 느낀 그 감정들을 나타낼 수 있는 색상과 작은 단위들의 형태를 설정하고, 이렇게 설정 되어진 작은 단위들을 이용해 군집을 이룬 형상을 만들어 그 안에 내 기억 속 내음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그리고 내음에 대한 시각적 표현을 설정하여 그 단어 맞는 형상을 함께 만들어 냈다.

3.2 기억 속 내음에 대한 표현 방법

기억속 내음에 대한 표현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기억속 내음을 떠올랐을 때의 시각적 느낌과 그 당시의 내음을 맡았을 때의 내 감정 표현 이다. 이러한 표현 방법을 중심으로 작업을 진행해 나갔다.

3.2.1 기억 속 내음에 대한 시각적 느낌 표현

내가 기억하는 내음을 떠오르게 되면 그 내음이 났던 장소, 같이 있었던 사람들, 그 장소를 채우고 있는 사물들 등 여러가지 시각적 요소들이 함께 떠오른다. 그 당시 기억 된 시각적 느낌들은 내 기억에 의해 떠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와는 다를 수 있고 주관적인 관점에 의한 기억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도 나는 특별하게 기억하는 경우도 있게된다. 그래서 내음에 대한 시각적 느낌은 주관적인 표현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내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랐을 때 생각되어질 수 있는 단어 '확산' 을 설정하여 내음이 퍼져나가는 느낌을 표현해보고자 하였다.



[그림 9, 10] '확산'을 표현하는 작은 단위들

3.2.2 기억 속 내음을 떠올렸을 때의 감정 표현

각자 기억에 내음과 관련된 기억들이 있을 것이다. 그 당시 그 내음을 맡았을 때 좋은 감정이 들었으면 좋은 내음으로 기억 될 것이고, 짜증이나고 싫은 감정이 들었다면 그 내음은 싫은 내음으로 기억 될 것이다. 내 기억속 내음을 떠올렸을 때 그 당시 느꼈던 감정들을 먼저 단어로 설정을 하고 그 단어에 맞는 감정표현을 색과 작은 단위들이군집된 형태를 이용해 표현하고자 했다.

색은 사람의 눈에 가장 먼저 인식되는 요소이며 사람의 심리상태나 감정에 따라 색상의 선택이 달라질 만큼 하나의 표현 언어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또한 색은 각각 일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개인의 경험이나 기억에 의해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기도 한다. 색은 그 자체가 아주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으며, 미묘한 차이로 전혀 다른 느낌을 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조형 요소들보다 감정을 표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작은 단위들이 군집을 이루어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 낼 때, 이 단위들이 한가지 색상으로 표현 되어진 경우와 여러가지 색상을 이용해 표현되어진 경우는 매우 다르다. 여러 작은 단위들을 이용하게 되면 좀 더 색상에 대한 표현 범위가 넓어지고 다양한 느낌을 표현 할 수 있게 된다. 또 작은 단위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지고 상호 작용을 하는지에 따라 형태의 다양성도 볼 수 있어 이러한 표현 방법을 이용해 감정을 표현하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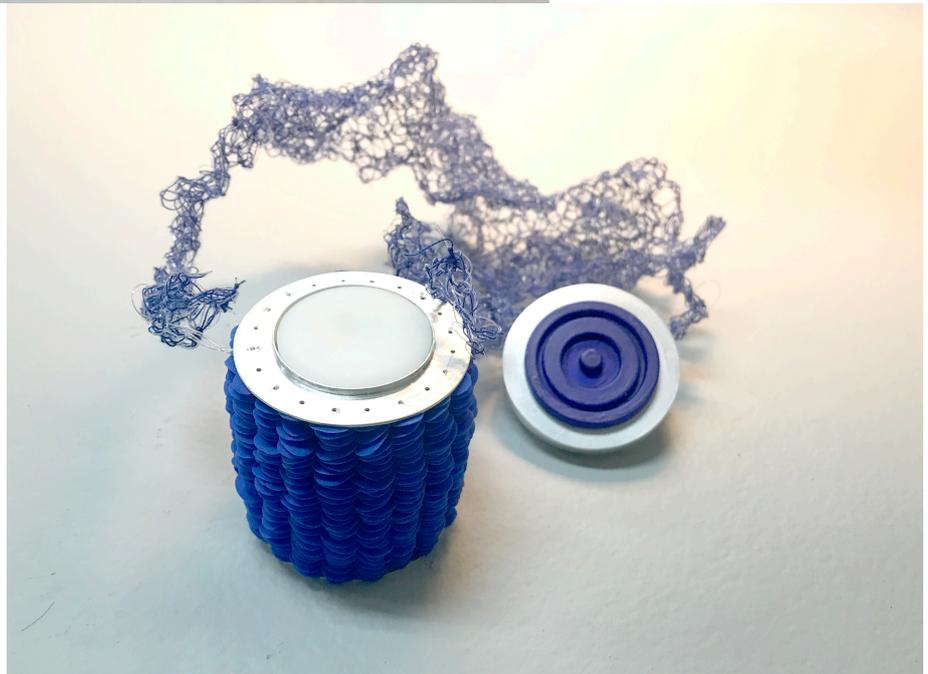
[그림 11, 12] 색상을 이용해 '감정'을 표현 한 작은 단위들



[그림 13, 14] 작은 단위들의 군집

4. 연구작품

4.1 연구작품



[연구 작품 1] 내 파란색 휴통

[연구 작품 1]은 학부 시절 좋은 추억이 있는 내 기억속 소조실 공간의 내음에서 작업이 시작되었다. 내 파란색 플라스틱 휴통에는 작업을 위한 휴들이 가득 들어있었고, 작업을 하려고 휴통을 열 때마다 소조실은 휴내음과 곰팡이 내음, 또 실습실 특유의 송진 내음이 섞여 그 공간이 냄새로 가득 채워졌었다. 이 내음의 기억을 바탕으로 그 공간을 대표하는 파란색 플라스틱 휴통의 형태를 만들고 내형기를 만들어 뚜껑이 열릴 때 마다 내 기억 속 내음이 퍼질 수 있는 컨테이너 목걸이를 만들었다. 컨테이너 형태는 플라스틱 통 형상이 유추 되어질 수 있게 만들고 그 형태 전체를 수지점토를 이용한 유닛들을 조합하여 작업 할 때의 기쁜 감정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플라스틱 통 손잡이 부분을 끈을 이용해 만들고 그 부분은 낚시줄과 파란색 실을 함께 엮어 향이 퍼져나가는 확산의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4.2.1 연구작품 2



[연구 작품 2] 1994년, 병원에서 1

4.2.2 연구작품 3



[연구 작품 3] 1994년, 병원에서 2

[연구 작품 2,3]는 후각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된 원인이자 이유인 아팠던 유년기시절,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병원에서의 내음'을 작업의 소재로 정해 진행하게 되었다. 이번 작업을 진행할 때는 작은 유닛들의 형상을 뾰족하게 만들어 아팠을 때의 예민하고 싫은 감정을 색과 유닛의 형상을 이용해 추상적으로 풀어나가고자 했다. 또 내음을 떠오르게 되면 그 내음이 났던 장소, 같이 있었던 사람들, 그 장소를 채우고 있는 사물들 등 여러가지 시각적 요소들이 함께 떠오르게 된다. 그 당시 기억된 시각적 느낌들은 내 기억에 의해 떠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와는 다를 수 있고 주관적인 관점에 의한 기억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도 나한테는 특별하게 기억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냄새에 대한 시각적 표현은 주관적인 표현 보다 여러 사람들이 냄새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생각되어 질 수 있는 단어 '확산'을 설정하여 냄새가 퍼져나가는 느낌을 표현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 작품 2,3]은 같은 주제로 브로치와 목걸이, 2가지 작업을 진행해 아팠던 감정과 확산에 대한 시각적 이미지, 그리고 기억속 관련된 사물이나 형상들을 형태로 연결해 작업을 진행해 나갔다. 브로치 작업의 형상은 산소 호흡기의 형상이 유추되어 질 수 있도록, 목걸이의 형상에서는 천식과 관련된 장기인 폐의 형상이 연상이 되어질 수 있게 진행하였다. 추상적으로 감정과 시각적 이미지를 표현했지만, 또 이러한 형상에서 작업의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연상되어 질 수 있게 작업을 진행해 나갔다.

5. 나가는 말

이번 연구를 통해 내 기억 속에 자리잡았던 내음에 대한 추억들을 구체화 해서 치레거리로 표현 할 수 있었다. 앞으로 또 다른 경험들을 통해서 새로운 기억이 생겨날 것이고 이는 곧 내 작업의 소재가 되어 줄 것이다. 수지 점토는 작업의 전 과정에서 핵심 재료로 사용되어졌고, 기억 속 내음에 대한 주관적 느낌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재료로 사용되어졌다. 수지점토의 재료적인 연구와 작은 단위들을 이용한 군집된 형태들을 금속과 연결하는 구조적인 부분을 더 다양하게 진행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앞으로 이러한 아쉬운 점들을 보완하여 새로운 조형 언어로 다양하게 발전시켜 계속 연구해 나가야 할 것 같다.

도움 글 목록

논문

김지민 『기억속 이미지의 기록』 국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9

김희양 『버섯과 증식의 이미지를 표현한 장신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4

김지영 『기억 이미지를 통한 자기에 표현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7

기타

<http://www.anahagopian.com/>

<http://bridgetkennedy.com.au/vicki-mason/>